

경제

Biz & Economy

10 광주일보

제17428호 2006년 4월 21일 금요일

주가	환율	금리
-3.69	+2.80	보합
1,434.15 (코스피지수)	948.40원 (원/달러)	4.9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94.12	(-7.73)
다우 (19일)	11,278.77	(+10.00)
나스닥 (19일)	2,370.88	(+14.74)
닛케이	17,317.53	(-32.59)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59엔	(-0.93)
유로-달러 환율	1,235.1달러	(-0.10)
3년만기 회사채	5.24%	(보합)
물금리	3.97%	(-0.02)

일신방직 평동산단에 제2공장

520억 투입 오늘 기공...내년 가동

일신방직(주)이 21일 평동 1차 산업단지내 3만평에 최신식 설비를 갖춘 광주 제2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520억원이 투입되는 2공장은 오는 8월까지 건축공사 및 기계설치공사를 마치고 생산시험 운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부분가동에 들어간다. 본격가동은 2007년 1월부터 시작된다.

2공장은 정방기 7만추, 고용인원 210명 규모로 연간 1만8천건의 최고급 면사(코마사)를 생산해 520억원의 매출액 증대가 예상된다.

2공장은 현재 임동에 가동중인 1공장(정방기 12만2천700추, 생산량 3만2천추, 고용인원 700명, 매출액 870억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면방회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편 광주시는 평동 2차 산업단지 51만평 가운데 금형산업단지 5만평을 포함, 11만평에 대해 당초 준공일인 2008년 5월보다 1년 6개월을 앞당겨 오는 10월 공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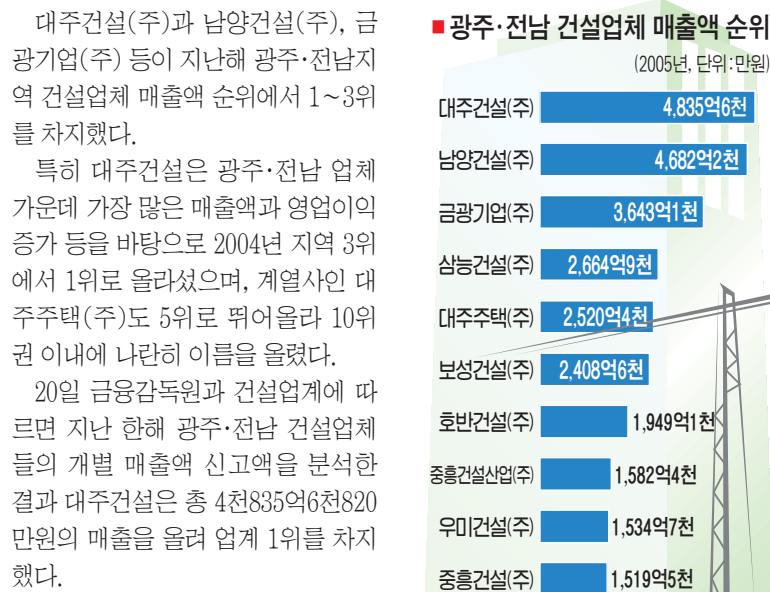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건설업체 2005년 매출액 살펴보니

대주건설 4,836억 1위

분양수익 1,025억 달해...영업이익 개선

남양건설·금광기업·삼능·대주주택 順



대주건설(주)과 남양건설(주), 금광기업(주) 등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건설업체 매출액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주건설은 광주·전남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등을 바탕으로 2004년 지역 3위에서 1위로 올라섰으며, 계열사인 대주주택(주)도 5위로 뛰어올라 10위권 이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광주·전남 건설업체들의 개별 매출액 신고액을 분석한 결과 대주건설은 총 4천835억6천820만원의 매출을 올려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주건설의 분양수익이 1천24억7천358만원에 달하면서 2004년보다 64%(400억2천653만원) 증가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실적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주건설의 공사수익은 총 3천810억9천462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주건설은 또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수익성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주건설의 영업이익은 302억5천322만원으로 2004년 156억158만원보다 무려 93.9%(146억4천874만원)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2004년 3.9%에서 지난해 6.26%로 크게 높아졌다.

이와함께 남양건설과 금광기업은 각각 4천682억1천933만원, 3천643억577만원의 매출을 거둬 2, 3위를 기록

했다.

2004년 업계 1위를 차지했던 남양건설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4천335억6천135만원보다 8%(346억5천798만원) 증가했지만 기타부문에서의 수익 감소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또 영업이익의 경우 2004년 169억7천718만원에서 지난해 210억5천993만원으로 24%(40억8천275만원)나 증가하는 등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금광기업은 지난해 공사수익이 3천641억3천747만원으로 2004년 4천255억3천573만원보다 14%(613억9천826만원) 감소한 데다 분양수익과 기타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4천628만원, 1억4천153만원 감소하면서 총 매출액이 줄었다.

이들 기업에 이어 삼능건설(주)은 2004년 2천83억4천605만원보다 28%(581억5천239만원) 증가한 2천664억9천844만원의 매출을 올려 4위에 올랐으며, 대주주택(주)은 2천520억4천655만원으로 5위로 뛰어올랐다.

이밖에 보성건설(주)이 2천408억6천161만원으로 6위에 오른 것을 비롯 ▲호반건설산업(주) 1천949억5877만원 ▲중흥건설산업(주) 1천582억4천553만원 ▲우미건설(주) 1천534억7천844만원 ▲중흥건설(주) 1천519억5천717만원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시와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가 20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디지털 가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 확대

광주 가전산업 사업 설명회

광주시와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 본부는 20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디지털 가전산업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이 자리에서 3천200여명이 소요되는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 확대와 상용화 기술개발, 클러스터 구축 등 디지털 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6개 분야 25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첨단단지내 9천600여평에 379억원을 들여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인 이 센터는 전자부품 기술개발 장비를 구축, 기업들의 원천·애로기

술 관련 지원을 하게 된다.

센터는 전자부품 실험실 및 연구실, 벤처 인큐베이터 및 연구실, 대학교육 역량 집적공간 등을 갖춘 연구실·기기 공동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인재육성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센터는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 인증을 얻어 광주 유일의 전자부품 관련 인증기관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비구축 로드맵'에 따라 2008년까지 157종의 장비를 구축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농협 주말농장 개장

참여 가족 연중 모집

광주농협(조합장 김기호)은 19일 북구 장등동 해피 팜주말농장에서 정찬인 광주농협본부장과 농장분양을 받은 가족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말농

장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은 주말농장 개요 설명, 파종요령 및 농장시설 이용안내, 참여가족들의 모종심기 등 영농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주말농장을 신청하려는 가족은 농협 중앙회 광주지역본부(062-603-6551)나 광주농협(062-250-5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임신을 축하합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임신·수유기 엄마를 위한
균형영양식

아기를 위한 엄마의 산양분유

임신·수유기 엄마를 위한
균형영양식

이런 편을 꼭 꼭 꼭 꼭!

- ♥ 무균을 철저히 지켜주는 멸균·수은
- ♥ 입맛이 싹새 영양섭취를 위해 코리산은 3배
- ♥ 고품질 솔리드 영양분(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 ♥ 영양 요구량이 높아지는 3주~9주 임부

■ 고객센터: 02-453-6333

아기를 위한 엄마의 산양분유 200(30g) 30 우유 2팩(400ml) 이하

- ▶ 임신: 임부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인 칼슘을 다량 함유
- ▶ 임부: 임부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인 칼슘을 다량 함유
- ▶ 임부: 임부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인 칼슘을 다량 함유
- ▶ 임부: 임부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인 칼슘을 다량 함유

임신·육아교육 무료 화상상담 ■ 개인정보: 임신중이거나 3개월 미만의 아기를 두신 어머니 ■ 개인정보: 전화 02-2049-2121 / www.dongfood.co.kr